

'광주시민의발' 택시 웨이러나



시끄러운 음악에 콜 소음·전화통화까지...

손님은 안중에도 없다

- 1 시끄러워 못 타겠어요
- 2 거리의 '폭군'인가
- 3 친절만이 살길

매일 택시를 타고 출·퇴근 하는 회사원 정모(48·광주시 북구 운림동)씨. 평소 시끄러운 것은 질색인 정씨는 택시만 타면 '소음 공해'에 시달리기 일쑤라고 '하소연한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무전기 소리. 일부 젊은 택시 기사들은 최신 오디오와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음악 볼륨을 한껏 높이기도 한다.

'소음공해' 시달리기 일쑤

최근 택시 내에서의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콜택시 등에 설치된 무전기의 소음과 음악소리, 기사들의 사적인 전화통화 소리 때문에 택시만 타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라는 것이다.

분부가 기사들에게 끊임없이 승객들의 위치를 알리는 콜택시(Call taxi)의 특성상, 승객들은 무전기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 특히 콜택시 기사들은 무전기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창문을 열어 놓

광주 택시의 불친절과 횡포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많다. 비엔날레와 총장로 축제, 김치축제 등 전국 단위의 축제가 연일 계속 되는 광주를 찾는 의지인들도 "택시 서비스 수준이 전국 최하위 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불친절 광주 택시' 무엇이 문제인가?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택시 서비스 현주소를 진단한다.

경우가 많아 승객들은 시끄러운 소음뿐 아니라 답답함에도 시달려야 한다.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택시는 총 8천276대(개인 4천769대·법인 3천507대). 이중 콜택시는 14개 회사 2천930대(2005년 11월 말 기준)로 전체 35.4%에 달한다.

일부 기사들은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 승객들의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심지어 택시 내에 1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한 기사도 있다.

이들은 '우퍼'(저음 스피커)와 중음·고음·고음 스피커 등 10개 이상의 스피커를 설치한다. 일부 손님들은 "신기하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볼륨이 너무 높을 경우 "불쾌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김모(여·49·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아들뻘로 보이는 한 기사가 운전 내내 록(Rock)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기분이 언짢았다"면서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혹 해코지할까 무서워 말도 못했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객들은 헨즈프리를 이용한 기사들이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로 전화를 한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꼭 필요한 전화라면 이해하지만 다른 기사들과 사적인 '잡담'을 늘어놓는다는 것이다.

기사들 횡포에 승객 '짜증'

시민 최모(27·광주시 북구 삼각동)씨는 "명색이 '손님'인데 기본적인 에티켓(etiquette)도 지키기 않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면서 "택시 영업이 잘 안 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사들이 자성해야 할 부분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995년부터 8년간 광주의 택시승객 감소율이 전국 평균 0.98%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9.18%에 달했다고 밝히는 등 택시 업계는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제3순환도로 본격 추진

나주~화순~담양~장성 '광주외곽순환도로'

내년 말 제2순환도로 완공

광주시와 나주·화순·담양·장성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구상이 교통망 구성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시와 나주 등 4개 인접시군을 묶는 신광역도시(메트로폴리탄) 조성의 첫 단추로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나주 등 4개 시·군을 한 경제 테두리로 묶는 광주권 경제통합을 추진, 250만명

규모의 광역도시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와 인접한 나주 금천에서 장성 진원~담양 대덕~화순 도곡~나주 금천으로 이어지는 102.4km를 연결하는 '광주권 도시외곽순환도로'(제3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광주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도로망 구축으로 물류 비용 절감과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 기능 효율성 증대 등 광주 및 전남 중부권 발전과 도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 말에는 광주 외곽을 연

■광주권역 교통망개략도



결하는 38km 구간의 제2순환도로를 모두 연결한다.

또 광주와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영광선과 나주선, 담양선 등도 2008년까지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광주 서 화순을 연결하는 현재 4차로 구간

은 6~8차로로 확장되며 내년 실시계획을 거쳐 2012년 완공할 계획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 광주·전남의 상생변영을 이끌어 갈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광주와 장성·담양·화순·나주를 포괄하는 '광주권 경제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광주와 4개 시군의 시·도민이 참여하는 가칭 '광주권 경제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발전전략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광주권 경제통합을 위해 ▲광주~장성~담양~화순~나주를 잇는 제3순환도로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하남산단 외곽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news@kwangju.co.kr

연인원 200만명 관람...광주 대표축제로

■총장로 축제 결산 상권부활 불씨 되살려

'제3회 광주 총장로 축제'가 22일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6일간의 '흥겨운 어울림'을 끝냈다.

행사를 주관한 광주시 동구청은 축제 기간 동안 연인원 200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축제가 몰락해가는 총장로 상권 부활의 불씨를 되살린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 이전 축제가 7080세대 위주였던 것에 비해 올해 축제는 2030세대와 조화를 이룬 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축제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 지자체 공연팀이 참가하는 등 총장로 축제가 '동구민의 행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는 대형도사락 먹기·추억의 놀이마당·추억의 마차체험·거리 퍼포먼스 등 체



총장로 축제는 '7080세대의 추억'과 '2030세대의 자유분방함'이 한데 어울린 대표적인 도심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70~80년대 대표적인 패션 가운데 하나인 교련복 패션을 재현한 총장로 축제 가장행렬.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협행사가 인기를 끌었고, 옛 도청 앞에서 열린 갖가지 공연행사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대명 동구청장은 "총장로 축제가 10회를 넘으면 영국 에딘버러 축

제와 노팅엄 축제처럼 세계적인 도심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프로그램 내실화와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남부소방서 송영석씨 전국 '최강 소방관'



광주 남부소방서 송영석 소방사(사진)가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최강소방관 경기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22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남부소방서 송영석 소방사가 최강소방관 경기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광주영소방대는 단체경기인 포켓점점스와 두검말이 수관용기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고,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는 대학생부 경연 기도삽관분야에서 3위에 올랐다.

/김주정기자 jjnnews@

수술안고 척추디스크 거뜬히 치료

천지민한방의원

이런, 이런 두서너개 필요가 없다.

천지민한방의원